

Onesimus Newsletter

(오네시모 선교회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 8:26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so afraid?” Matthew 8:26



2024 June

목차 Table of Contents

인사말 ~~~~~	2
Greeting ~~~~~	4
어떻게 살 것인가? (최준성 목사) ~~~~~	5
How to live? (Pastor John Choi) ~~~~~	9
감옥방문을 마치고 (최준성 목사) ~~~~~	12
Prison visiting (Pastor John Choi) ~~~~~	14
Story (Dwight – Onesimus School of Theology Student) ~~~~~	16
인터넷에서 퍼온 글 ~~~~~	18
기도 제목 ~~~~~	22

인사말

지금까지 지내 온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이 구체적으로 또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형제, 자매들이 계신곳은 어떠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선교회
가 있는 남가주에는 이번에는 특별히 비가 많이 왔던 겨울이었는데,
이번 겨울만 해도 우박이라고 하는 얼음비가 세 번이나 내린 기억을
합니다.

비를 많이들 기다렸지만 이제는 살짝 지겨워지는 느낌도 있네요,
지나간 추위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젠 봄 기운 만연한 햇살과
따뜻함이 더불어 우리 앞으로 성큼 성큼 큰 발자국을 땁니다.

오네시모 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회를 섬기시는 우리의 사역자
들을 위해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려 주신 덕분에 주위는, 아름답고 예쁜 꽃들
이 줄이어 향기로운 모습을 뽐내고, 맑은 하늘의 드높음은 셋 푸르름
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 조금 씩 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 다.

성경에는 참 된 선지자도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도 많이 등장합니다.
또 동서고금 (동서양이나 옛날과 지금)이 별 반 다르지 않게 인간의
역사에도 어김없이 충신이 있으면 간신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간신은 백성과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늘 말하는
사람 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와 충신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들이 반드시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외
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당장은 불편해도, 그 외침을 듣고 그대로 살기
를 원했던 그들의 인생은 결국 성공이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
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마 11:15)

그저 들리는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반드시 듣는 우

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맘에 들어 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또 거기다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하루 하루, 작은 시간 시간에도 세밀하게 실천하고 사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모자라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성껏 작은 소식지를 주님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또 보내 드리니, 이 작은 소식지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한 부스러기의, 맛을 내는 소금과, 거기다가 희미하나마 나의 주변을 조금이라도 환하게 밝혀 줄 소담한 등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글로나마 짧게 인사를 드립니다.

내내 건강하고, 하루 하루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성 목사



~~ Greetings ~~

I believe you're doing well under God's constant guidance. How are things with you, dear brothers and sisters? Here in sunny Southern California, where our mission church is located, we've had quite a rainy winter, marked by three rare hailstorms.

While we eagerly welcomed the rain at first, we look forward to warmer weather. I hope you've stayed warm through the cold. With spring's arrival, the sunshine and blooming life around us offer a welcome change.

A heartfelt thank you goes out to all who remember and pray for Onesimus Mission Church and our devoted workers. The abundant rain has painted our surroundings with vibrant flowers and unveiled the clear, rejuvenating blue of the sky. And I believe, as always, that the Holy Spirit continues to shape us into reflections of Jesus.

In the pages of the Bible, true prophets stand alongside false ones.

Throughout history, we've seen both loyal and treacherous souls. False prophets and traitors echo the desires of the people and kings, while true prophets and loyal souls speak uncomfortable truths that lead to eventual success.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Matthew 11:15)

Let's not just listen but truly heed God's word. Could we not become the very delight of God? And by living out His word daily, could we not bring true joy to Him?

With humility, I send this newsletter in the name of the Lord, hoping it shines a light in your daily lives. Wishing you health and continued fellowship with the Lord.

Blessing and loving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nk you.!!

Pastor John Choi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하니이다” -(예레미야 10 장 23 절)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새번역)

해발 8500 미터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계곡에는 밤에만 우는 새라고 이름이 붙여진 야명조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산이 높으니 자연히 계곡도 아주 깊어 그 깊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해가 떠 있어 따뜻한 기온이 머무는 낮 동안에 다른 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모아 저장을 하고 동지를 튼튼히 하여 매섭게 추운 밤을 미리 대비합니다.

하지만 이 야명조는 낮에 햇빛이 비칠 때 별이 드는 따뜻한 곳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이제 해가 지고 서서히 찬 기운이 불어 닥치면 그때 깨어 일어나, 갈 곳없고 먹을 것 없이 헤메이다 밤이 새도록 몰아치는 눈바람과 추위와 배고픔에 서러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다 울리도록 처량하게 떨면서 울기를 계속합니다. 밤에만 우는 새, 곧 야명조입니다.

그리고 야명조는 이제 또 해가 다시 뜨면 밤새 추위에 떨면서 울던 지친 몸을 가누며 또 다시 한 낮 동안 따뜻한 곳에 자리 잡고 밤새 얼었던 몸을, 내리 쬐는 햇볕 아래 녹이며 늘어지게 깊은 잠에 다시 빠지고,,, 그렇게 야명조의 의미없는 시간은 매일 똑 같이 반복되어 흘러 갑니다.

목적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이 야명조처럼 하루 하루를 의미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설령 목적이 있다 해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고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여 흘려보낸 시간은 장차 우리의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며 한 번쯤은 생각 해 보았음직한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 가며, 또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있게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혹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지 못 한다면 머뭇머뭇한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목적 없는 인생을 그냥 살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집 없는 떠돌이 노숙자로 살고, 궁핍해서 쓸 돈이 부족하며, 몸이 여기 저기 고장나서 매일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과연 어디서 왔고, 내가 과연 누구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나는 장차 이 다음에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이며, 그런 나는 나의 인생을 다 끝 마쳤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살아가는 길인가?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쓰고 싶을 만큼 언제든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지갑이 두둑한 사람, 몸이 건강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길인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가는 길은 여러가지 길이 있고 모든 사람이 제 각각 옳다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옳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그 분이 곧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그럼으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 쓰여진 소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역사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피조물 우리 인간이 걸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우리 모든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럼으로 나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결국 날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멸망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나쁜 생각과 시기와 교만한 행동으로 죄에 얽매어, 과거의 죄 된 모습으로 교만, 시기, 더러운 생각, 분노, 불안한 마음으로 많은 순간 순간 살아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하니이다” (렘 10:23)

나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똑 바로 아는 사람은 나의 갈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 할 줄 아는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길을 따라 가다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이었음을 알고, 후회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로 가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 1서 1:7)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지난 잘못과 허물, 아픈 과거, 잘 못 살아 온 시간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지시고 흘려야 할 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의 가슴으로 믿고 그 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그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지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나는 나의 이전의 나쁜 모습과 습관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 버리고 그것들의 노예가 다시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옛 친구였던 사단은 나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들추어 내며 나를 다시 자기에게 불러 들이고, 나의 과거의 죄된 습관들은 나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사단에 의해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제 예수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야 할 길과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눈처럼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새 생명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 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민하게 살아 갑니다. 더욱 더 크고 충만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더 간절히 사모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 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원칙과 진리 만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껏 내가 내 맘대로 걸었던 길과는 다른, 좁은 길 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갈수록 넓어지는 길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길은 처음에는 쉽고 넓지만 갈수록 좁아져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를 인도하실것을 믿고, 그 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연합해서 살아감으로 나의 인생에 그 분으로 인한 많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 장차 그 분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모두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신실하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Sharing God's Word Together

"The way of a man is not in himself, nor is it in a man who walks to direct his steps." - (Jeremiah 10:23) "Lord, I know that people's lives are not their own; it is not for them to direct their steps." (New International Version) In the valleys of Mount Everest, the highest peak in the Himalayas at over 8,500 meters, there is a bird called the Night Crier, which only cries at night. As the mountains are high, the valleys are naturally deep, and to block the cold wind and chill that blows from the deep valley, the sun stays warm during the day, allowing other birds to gather food diligently during the warm daytime, preparing their nests robustly to withstand the bitterly cold nights ahead.

However, the Night Crier rests in the warmth of the sun during the day, awakening only when the sun sets and the cold sets in, crying in desolation, with nowhere to go and nothing to eat, lamenting bitterly, causing the high mountains and deep valleys to echo with its cries. The Night Crier, a bird that cries only at night.

And when the sun rises again, the Night Crier, having endured the cold of the night, restrains its weary body, finds a warm spot during the day, basks in the sun to thaw its frozen body, and falls into a deep sleep again,,,,, thus the time of the Night Crier repeats itself every day.

There is no one who lives a purposeless life as foolishly as a foolish person. Are there any among us who lives each day meaninglessly, like the Night Crier? Even if there is a purpose, are there any people who live with misguided purposes? And do we believe that we can live our lives according to our plans and our will? What are we living for today? Do we believe that the time we spend today will bring us any benefit in our future?

Let us ask ourselves questions that we have probably thought about at least once.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doing and living for, and where are we going now? Can we confidently answer these questions? And if we cannot confidently answer these questions, perhaps we are simply living aimlessly right now.

Living as homeless wanderers, struggling with poverty, lacking money for basic necessities, suffering every day with our bodies breaking down here

and there, are we not pitiable individuals? Surely, my life - where did it come from, who am I really, what am I doing now, what will I become in the future, and where will I go when I finish my life - if I do not truly reflect on these questions and live without consideration, then I am truly a pitiable and unfortunate person.

Let us also ask this question: what is truly the right way to live? Is it living by striving to become someone who lives in a good house, drives a good car, and has enough money to spend whenever they want? That might be possible, but there are various paths in life, and everyone is walking their own right path. However, there is a right path that Jesus Christ has taught us. He is the truth of life, our life, and He has precisely told us the right path that our lives should take.

The Bible is the Word of Almighty God, revealing Jesus Christ. The words of the Bible are not novels written by men, but are history written by chosen men inspired by the Almighty God, showing the way that all of us, the creatures of God, should walk.

We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is children. But we are separated from our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of sin. So, my appearance before believing in Jesus is ultimately the appearance of perdition, running towards death every day.

Such as I, we continue to live entangled in sin with our bad thoughts, jealousy, prideful actions, and moments of living with dirty thoughts, anger, and anxious hearts from our past sins.

"The way of a man is not in himself, nor is it in a man who walks to direct his steps" (Jeremiah 10:23). Thinking for myself, living according to my plans, and believing that my life is living according to my will, many think this way. But a person who truly knows God correctly confesses that his path is not in himself but in the providence of God.

Those who think and realize that they have been walking on a path that God did not guide, repents, and confesses wisely.

Let us walk in the path that Jesus Christ has taught us.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1 John 1:7)

Believing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ho bore our sins on the cross, and believing that His blood shed on the cross will cleanse me from my past sins, my bad past, and the times I lived badly before God. It is believing in receiving the discipline that I should receive before God for the pain I should suffer, and the blood I should shed for my past sins. Then He

promised to cleanse all my sins, and I believe in the grace of His word, and I go before Him with my heart.

That is the moment when I am reborn in faith, and that is the moment when my position as a child of God is restored. I must discard all the bad habits and habits of my past after receiving Jesus.

But Satan, our enemy, will continue to tempt me. He will bring up my past and call me back to him, and my past sinful habits will not forget me and continue to remind me.

But I will no longer fall into Satan's temptations, and now that I have accepted Jesus, no matter what others say, I have a clear path and goal to follow in Jesus.

How will I live?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n the cross. I have been forgiven for all my mistakes, faults, and sins by the blood shed by Jesus. I have been resolved as clean as snow. Not only that, but Jesus has risen again so that I can live in a new life, experiencing God's help and restoration every day. Now, I believe in Jesus Christ, who is alive even at this moment.

As one who has been restored as a child of God, I live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thin me. We must pray consistently to receive a greater and fuller Spirit. God has already promised that He will give us more when we earnestly desire it.

Let's follow the path that Jesus Christ has taught us. He said it was a narrow path. Liv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s and truths of His word may be a difficult, narrower path than the one I have walked before. But the path Jesus taught us is a path that becomes wider as we go, while Satan's path is a path that becomes narrower as we go, despite being easy and wide at first. Believing that God, who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will guide my future, I trust in Him. May our communion with Him, as we live in union, bear much good fruit in my life, and may we all, in His faithful name, be blessed to reach the completion of salvation before Him."



4 월 06 일 2024 년

여느 약을 하는 형제들이 거의 그렇듯이 잠시 사회에 나와서 좋아지는 듯하다가, 자신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다시는 약을 끊어 보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안감힘으로 발버둥 쳤는지는 알 순 없지만, 지금까지 나의 기억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면 조금 연락이 뜸하다 싶으면 어느새 다시 교정 시설로 들어가 덩그러니 앉아 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 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 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벧후 2:22)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떠올리며 나의 약한 믿음에 부끄러운 맘을 들게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 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4:6)

한 번도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브라이언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경로로 전해 들은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그의 살아왔던 인생의 경로를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안도 가뭄으로 적잖았던 사람들의 염려를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는 듯 유난히도 비를 많이 내려주신 이번 우기에, 간 밤에는 우리가 행여 그 생김새까지 잊을까 우박까지 선물로 내려 주셨다. 거기다가 비포장 도로를 한 참 운전해 갈 때 한눈에 들어오는 주위의 마을에는 오랜만에 보는 눈 병풍이 온 지붕에 두루마리를 편 것처럼 새하얗게 덮고 있었다.

혹시 않 나오지는 않을까? 처음보는 목사에게 무어라 말할까? 어떻게 임팩트 있게 복음을 건네줄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 늘상처럼 같은 생각이 내내 머리를 휘감아 온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 왜 이런 곳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착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은 처음 대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에 감사의 인사도 할 줄 알았고, 자신 때문에 그 백짓장 같은 마음에

새끼 줄처럼 굵은 주름이 잡히셨을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한 걸 같이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와 아픔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신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만 짝 먹으면, 그 까짓 약 따위는 지난 밤 꾸었던 기억 나지 않는 꿈처럼 금방 자신들의 인생에서 간단히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나의 문제는 내게로부터 온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물론 부모나 친구, 주위 환경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순 없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문제로부터 적극적으로 탈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굳이 알려고도, 또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치 않고, 때로는 자신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간섭으로 여겨 건성으로 지나치기 일쑤이기에 치유의 시기를 자꾸 놓치거나 또 지연하게 만들어 결국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든다.

주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엄마에 대한 대화에 이르러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이 붉히기도 한 브라이언은 이제 수 개월이 있으면 다시 나온다.

마주한 목사의 얼굴을 애써 피하고 땅을 보며, 말을 잇는 브라이언에게 말한다.

브라이언! 자책하고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지 말거라. 이제 나와 헤어지면 들어가서 두 손 모으고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야!

주님! 브라이언에게도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앞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되 돌아오는 비포장 도로위에서 덜컹거림과 함께 브라이언을 위해 드리지는 기도는, 차창너머 형무소 건물과 함께, 눈 지붕 사이로 녹아 흐르는 눈처럼 아쉬움을 한아름 담고 차창 뒷 편으로 밀려 간다



After visiting Brian Kwak (alias) Pastor John Choi

April 6, 2024

After concluding my visit with Brian Kwak (alias), I couldn't help but notice how swiftly he retreats into solitude, seemingly determined to break free from drug and struggling against it, much like many of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briefly venture into society under the guise of improvement, only to return to the correctional facility shortly thereafter. "Of them the proverbs are true: A dog returns to its vomit," and, "A sow that is washed goes back to her wallowing in the mud." (2 Peter 2:22).

Seeking God's grace and mercy, I am reminded of His faithful nature to fulfill promises in His own time and way, even as my weak faith fills me with shame.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Almighty" (Zechariah 4:6).

Though I've never met him, I feel I can somewhat grasp Brian's life path through various stories I've heard about him. Despite my ongoing concerns, it seems God, who knows all, decided to bless us with abundant rain this season, even surprising us with hail last night, perhaps to remind us of His presence. The surrounding areas, seen from the unpaved roads, were blanketed in white like giant scrolls, a rare sight indeed.

Will he even come out? What will he say to this pastor he's meeting for the first time? How can I effectively share the gospel? These questions swirl in my mind as I wait.

But Lord, why do these brothers and sisters we meet in places like this seem so kind? Brian knew how to express gratitude to me for coming a long way to visit him, as well as telling his parents that he loves them, despite feeling like a failure.

However, they, like many others, do not deeply consider their present issues. They believe that by simply shutting out their troubles, they can easily erase them from their lives like a forgotten dream from last night.

Moreover, they don't acknowledge that their problems stem from within themselves. While their environment may not be free from influence, ultimately, they must actively seek escape from their issues, yet they neither want to admit nor accept this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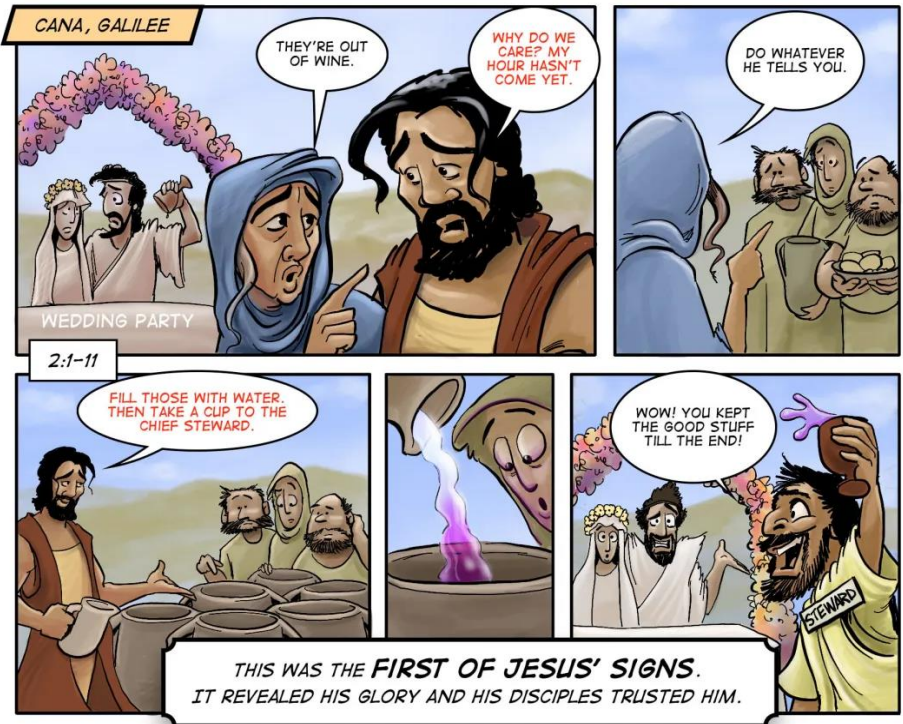
Thus, they reject help from those around them, viewing it as interference that restrains and binds them, leading them to overlook opportunities for healing and delaying their recovery, making their situation even more challenging.

During his conversation about his mother, Brian pauses his words, seemingly thinking deeply about what is being said. He is expected to be released in a few months.

With an earnest plea, I told Brian, "Brian! Do not blame yourself or give up hope. After I leave, go inside, put your hands together, and sincerely pray to the Lord, then the Lord will surely give you wisdom!"

Lord! Please break the chains of sin for Brian, guide his ways and his future so that he can become a joy to You.

As prayers for Brian are offered up on the return trip on the unpaved road, they fade into the distance, filled with regret, like snow melting through the gaps in the snowy roof.



9 Fireside story: A Dinner to Remember

Dwight – Onesimus School of Theology Student

Papaw Ike Alley sat on his favorite rocking chair with Thatcher, Bridger, Cooper, and Mae Mae, again ready for a story. They all were enjoying their snacks and the warm fire.

"Papaw, tell us a story of something Jesus did," Thatcher implored.

"Let me tell this one. You know the Bible says it does not contain all the miracles Jesus did. It does tell us about a great miracle where Jesus fed over 5,000 at one time.

"This is another story of a man named Joshua Wiseman. He sat around one night telling his grandkids this story, Drew, Eli, and Ryan.

"He said, 'One day, my mother packed me a small lunch because she knew I couldn't stay away from the huge crowds that followed Jesus. I was a young boy about your age, eight, I think. There were thousands of people following Jesus. Many said there were 5,000 men. With women and children, there were a lot more. Many just wanted Jesus to touch them to heal some need. •

"I had watched from a distance and could see the love and compassion on Jesus' face with each person He helped. I had gotten so caught up in watching Jesus, that I had forgotten to eat my lunch. Mother had put in a sack, two small smoked fish, and five small loaves of bread. It wasn't much, but enough for me.

"I heard Jesus say to His disciples, 'Find something for these to eat. Do not send them away.

"Philip, one of the disciples said, 'We could spend a whole year's salary and not have enough to feed everyone even a few bites.

"What did they do, Papaw?" Bridger asked. "I bet they were hungry. Papaw Ike said, 'Just let me finish and you'll see.'" He continued, "Joshua Wieseman continued, 'I could tell the disciples were really upset and didn't know what to do. Andrew, one of the disciples, asked me what I had in my sack. I told him Mother had put in two small fish and five small loaves for my lunch. I told him, it was not much, but if it would help that I'd give it to Jesus. Maybe at least He could have something to eat. He had worked so hard, He needed it more than I did. ""

Mae Mae said, "That was nice of him. Bridger sometimes gives me some of his candy. He's nice, too. Well, sometimes."

Bridger just smiled.

"Andrew took the lunch to Jesus and told him what was in it and where he had gotten it.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in groups of 50 and distribute the food."

"Jesus prayed and blessed the sack of food. He began to reach in the sack and to take out fish and bread. He kept reaching in the sack and taking fish and bread out and handing to His disciples, over and over. My eyes grew as big as a plate as I saw a miracle beyond belief!

"Those thousands were f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twelve baskets full of left overs!

"Jesus beckoned to me to come over to Him as he pointed His finger and pulled it back to Himself.

"I pointed at myself and mouthed, "Who me?"

"Jesus nodded and smiled.

"I walked up to Jesus and He patted me on the shoulder and said, "Thank you, Joshua, for giving up your lunch. All these people thank you, too.

It was your sacrifice that fed so many. My Father in heaven honors you for your heart of self-sacrifice and compassion. Take a basket of leftovers home to your family. Remember, 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You will be blessed for your blessing which you gave today."

"I was dumbfounded, because I couldn't figure out how Jesus knew my name. I had told no one my name and had never met Jesus before, but He knew my name.

"I took a basket of fish home and all my family and even some friends came over and all were filled.'

"Joshua had finished his story to his grandsons. They got up and were headed to eat supper which Joshua's wife, Kimberly had made. Someone knocked at the door. Joshua found a man and his wife and their five kids standing at his door.

Obviously, they had traveled all day and were tired and hungry.

"Well, hello sir,' Joshua greeted. 'Can I help you?'

"Yes you can, kind sir. We've traveled all day and can't find a place to lodge or eat. Could you tell us where we could find such accommodations?'

"Well of course, I Joshua said with a smile. 'Come on in. We are about to eat as soon as Kimberly says its ready. You are welcome to eat with us.

"Drew edged up to his grandpa Joshua and said, 'But Papaw, there will not be enough to feed seven more people. Mamaw only cooked enough for us.

""Eli said, 'Ryan and I will get some more lamb chops *and* potatos and corn for Mamaw to cook.'

"Joshua said, 'No need to do that, boys. There will be plenty.'

"Drew added, 'But Papaw, Mamaw only cooked enough for us to each have one lamb chop.'

"Don't worry, son, the Lord will provide,' added Joshua. 'Hey, let's eat. It looks like its ready!'

"They brought in some more chairs and crowded in the extra travelers. Joshua said a blessing over the food and Kimberly began passing around the platter of lamb chops. Each took a chop and passed it on, until all at the table had a lamb chop, even the travelers. There were even seven left over!

"All the grandkids looked at each other in awe! 'How did this happen? Eli asked.

"I thought you only cooked enough for just us?' Ryan asked.

"Drew said, 'I don't understand it, but, let's eat. I'm hungry!

"Joshua explained, 'Jesus is still providing for me because I gave my all to Him that time years ago. You see children, Jesus can do wonders if you will give your all to him. He honors those who give their all to Him.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Jesus is always blessing me, because of my belief in Him. I think He allowed you to see this miracle today for a reason. I'm sure Jesus had this fine family come and knock on our door so you could see Jesus in action. The lesson here, is to give your all to Jesus, all of yourself and Jesus will use you in ways beyond your imagination!

"Wow! Papaw Ike, that is awesome, Thatcher said. "I can't even begin to believe that could happen."

"Well, anything is possible with Jesus. The Bible tells us that. Faith is believing what Jesus says is true without having to see it for ourselves. Believe the Bible, that is God's Word. He said He fed 5,000 and I believe it."

"That's a good lesson, too," Cooper added. "Jesus wants us to give all to Him. I want to do that!"

"Me, too," Mae Mae said. "I want Jesus to bless me.

Bridger said with a smile, "He blesses me all the time. But, I want to give Him all I have, too."

"Great, kids!" Papaw Ike agreed. "There's nothing else to be said but what Joshua said in giving your all to Jesus. I think you got the message. Goodnight all!"

인터넷에서 퍼온글

작자미상

"조선" 의 후손들인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갓(冠,)을 쓰는 조선인☆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 모두 갓을 쓰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게 뭐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God)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단 말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인가?"

선교사가 궁금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오?"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써 보이며 대답합니다.

"朝鮮(조선)이요!

‘아침 (조)朝+깨끗할 (선)鮮’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조용하고 깨끗한 아침의 나라, Morning calm 의 나라 맞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선의 '朝(조)' 字를 풀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十(십) 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인 해 日(일) 자를 쓰고, 또 十(십) 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月(월) 자를 씁니다. 이렇게요."

십자가(十) 해 일(日)

십자가(十) 달 월(月)

선교사는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낮(日)에도 십자가(十),

밤(月)에도 십자가(十),

온종일 십자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鮮(선) 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魚) 옆에

양 양(羊) 字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 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고,

또 羊(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니 鮮(선) 字는 완전히 신앙고백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며 말하길

"朝鮮(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와 함께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또 한 번 감탄하며 선교사가 계속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Chosen People(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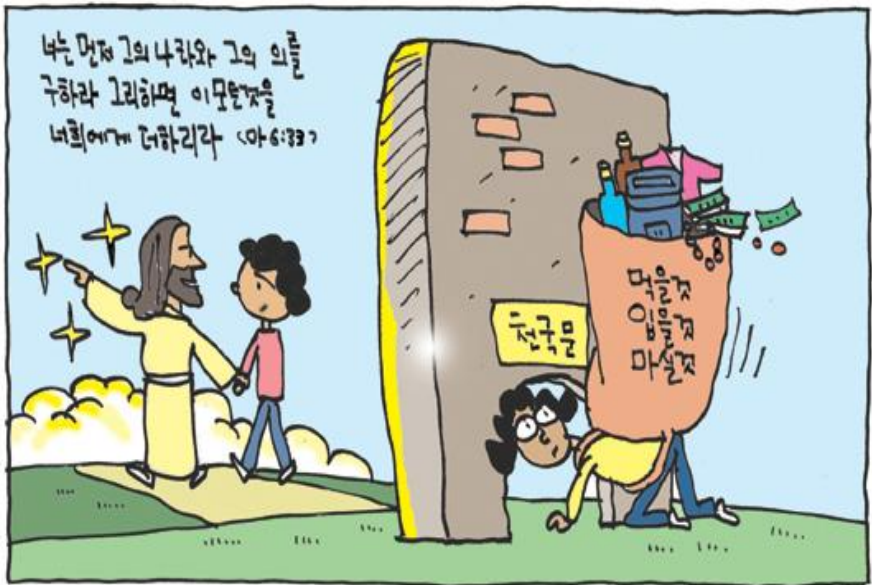
선택된(Chosen) 사람들(People),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選民)입니다!

조선인은 하나님(God, 갓)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낮이고, 밤이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온 깨끗한 아침의 나라

천손민족 (天孫民族)입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의도적으로 지어냈다 해도 놀랍고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 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로 동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 한마디는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오네시모 선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교회가 되도록,
2. 재소자 방문을 위한 교도소 방문의 먼길 운전이 항상 안전하도록,
3. 갇힌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되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4.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진정한 오네시모로 변화 되기를,
5. **Korean Community** 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6.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를 섬기는 사역자가 구해지도록,
7.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8. **New Life Ministry** (재소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역자로 변화되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사역)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확장되기를,
9. 한국의 추방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10. 오네시모 선교회 새 비전 “예방 사역”을 위하여
11. 선교회 사역을 위한 경제적 지원자들을 위해,
12. 오네시모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이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적 평강과 건강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성경과 신앙 서적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가족 관계에 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선교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0 시 30 분)

(재소자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회: 금요일 저녁 5 시 30 분)



Onesimus Ministry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0

Tel: 714-739-9100

Email: onesimusministry94@gmail.com

www.onesimusministry.org

[Est. 1994](#)

Onesimus New Life Ministry: Korea, Japan, Mexico, Colombia

International Humanitarian Exchange Council, CA USA.

Rev. Suk Ki Kim Founder

Rev. John S. Choi President